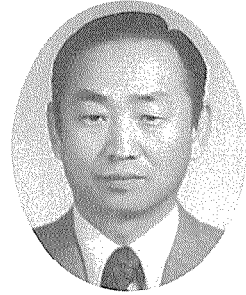


# 相互意見의 疎通과 理解를 위한 媒体가 되기를



三星電子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姜 普 九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始作이 라디오의 生産 開始年度인 1958年이라고 볼 때 不過 20年의 짧은 歷史 밖에 되지 않는 日淺한 産業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있어서도 순탄한 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重要 電子製品에 對한 價格의 直接規制, 컬러 TV의 市販과 放映을 둘러싼 論難과 遲滯, 耐久性消費材 産業으로서 不可避하게 따라야 할 流通金融의 缺如, 高率의 稅利等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發展을 가로막는 基本的인 各種 制限 속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 온 것이 事實이다. 만일 이런 障害要因이 없었던들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지금쯤 몇배의 發展을 했으리라는 點에 對하여 異意를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多幸히 80年 下半期에 와서 새 政府의 과감한 決斷과 迅速한 措置로 山積되어 있던 애로를 거의 同時에 解決해 줌으로써 業界는 새로운 發展의 基盤을 確保하게 되었으며 活氣를 되찾게 되어 무엇보다도 반갑다. 이것은 한 業體의 立場에서 뿐만 아니라 700餘個의 同業界 会社와 18萬名의 從業員을 포함한 電子業界 全體를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 全産業, 나아가 全經濟界를 위해서도 지극히 多幸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政府關係機關에 對하여 眞心으로 感謝하여 마지 않는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을 發展시키는 데 支障을 준 前述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發生한 原因은 電子産業 自体에 對한 國民對衆의 理解不足, 電子産業을 發生시키는 方法에 對한 經驗不足 電子産業을 成功의으로 發展시킨 다른 나라에 對한 研究不足, 우리나라 電子産業은 自己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安逸한 自信感 등으로 생각되며 우리 業界에서도 事前에 充分히 弘報하여 國民의 理解를 얻지 못하였다는 點에 있어서 責任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電子振興」誌를 振興會에서 發刊하게 됨에 따라 會員業體와 振興會間, 業界相互間, 業界와 學界, 言論界, 政府關係機關의 關係等 相互意見의 疎通과 理解가 빨라질 줄 알고 不必要한 機會逸失과 試行錯誤 그리고 浪費를 除去할 수 있는 좋은 媒体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 創刊을 眞心으로 祝賀하여 마지 않는다.

筆者는 위에서 電子産業의 振興을 위한 最近 政府의 諸般措置는 電子業界뿐만 아니라 全産業 및 우리나라 經濟全般을 위하여 매우 多幸한 일이었다고 썼다.

그것은 오늘날의 電子産業은 電子産業만을 위해 重要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産業에 影響을 미쳐 그 競爭力을 提高시키고 그 結果는 그나라 經濟全般에 決定的인 影響을

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電子産業은 그 自體의 輸出産業으로서의 比重, 國民生活를 運轉하게 하는 製品을 生産, 供給하는 産業으로서의 重要性 이외에 生産設備의 自動化, 省力化, 高品質化 또는 高能率化에 必要不可缺한 콘트롤 機能을 生産施設에 提供하기 때문에 그 重要性이 더욱 더 強調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鐵鑛도 石油도 石炭도 거의 生産하지 못하는 日本이 世界最強의 製鐵國이 된 理由가 製鐵設備에 電子콘트롤機能을 부여함으로써 高爐內의 鐵의 成分을 零點數퍼센트 以內로 維持한다던가 壓延施設에서 鋼板을 分速 1500m의 超高速으로 壓延하면서 鋼材의 用途에 따라 그 두께를 自由롭게 調整할 수 있다던지 두께의 變하는 點에서 正確하게 切斷하여 良品率이 93.93%에 達하게 함으로써 美國의 平均良品率 70%에 比하여 그 原價를 顯著하게 싸게 할 수 있었다는 點 등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生産設備에 電子콘트롤機能을 부여하여 生産性 良品率을 改善하여 品質을 올리고 原價를 떨어트리는 例는 製鐵産業 이외에도 各種 素材産業은 물론이고 半導體, 家電製品, 自動車 등의 組立檢査施設 등에 이르기까지 그 例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지금은 全生産設備가 自動化되어 가는 段階에 들어가 있고 이런 設備의 開發 生産能力 없이는 低勞賃 만으로는 거의 競争力을 確保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電子産業이 比較的 弱화된 狀態에 있는 西歐 諸國도 最近 몇년 사이에 學國의인 努力으로 電子産業을 育成시키기 위한 施策에 골몰하고 있는 것도 電子産業의 發展없이는 全産業에 걸쳐 競争力을 維持할 길이 없고 나가 先進國의 地位마저 흔들릴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 半導體, 電子通信, 光纖維 등이 모두 이러한 콘트롤機能의 必要不可缺한 要素이며 또 이런 要素들도 家電電子産業의 量産背景 위에 發展시켜야 된다는 事實, 그리고 이런 高度의 生産施設은 많은 境遇 自體使用分 이외는 生産도 하지 않으며 販賣도 꺼리기 때문에 自體 開發能力을 培養해 놓지 않으면 先進國과의 격

차는 더 벌어질 可能性이 크고 後에 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銘心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電子産業을 가장 效率的으로 育成하는 方法은 電子産業을 發展시킨 外國에서 어떤 制度를 채택해서 成功했는가를 調査, 研究하여 그 方法을 많이 参考, 定하는 것일 것이다. 그들의 價格政策, 金融政策, 稅制, 獎勵制度, 教育訓練制度 등은 물론 政策設定段階에서 參考가 되어야 되겠지만 業界에서도 業界 相互間의 協力關係, 特히 組立業體와 部品業體間의 協力關係를 많이 研究 調査하여 參考로 하여야 할 것이다.

電子製品은 本質的으로 날이 갈 수록 더욱 더 小型化되어 가고 그 性能은 強化되어야 하며 品質은 高度化가 要求되며 價格은 不變價格으로 볼 때 下落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屬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組立業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런 部品을 供給할 수 있는 部品業體를 協力社로서 確保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部品業體는 部品業體대로 自社의 存立을 위해서는 그런 部品을 使用하여 競争力이 있는 製品을 生産할 수 있는 組立業體와 긴밀한 關係를 保有하고 있느냐가 매우 重要한 일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相互間 어떤 유대와 協力을 유지해야 하느냐를 서로 研究하고 先進國으로부터 배워와야 할 것이다.

짧은 期間 동안에 電子産業을 發展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努力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다른 産業보다는 우리나라의 實情에 맞고 그런대로 部分的이나마 成果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이 産業임을 볼 때 그리고 政府의 方針이 지금은 確不動함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이제부터 飛躍的인 發展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컬러 TV 時代에 進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바야흐로 導入段階를 지나 本格的인 發展段階에 들어섰음을 實感하면서 “電子振興”誌의 無限한 發展과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順調로운 前進를 祈願하여 마지 않는다.